

## ■ 2026년 공연예술 창작주체(창작공간) 추가공모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공연예술 창작주체(창작공간) 추가공모
- 회의일시 : (서류심의) 2026년 6월 4일(목) 14:00~16: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2층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일송, 노승림, 손창우, 송현민, 이근수, 이미희, 정달영, 정성진

### ■ 사업 취지와 공모 조건을 돌아보며

공연예술창작주체(창작공간) 지원사업은 공연예술 분야 민간 공연장의 창작 활동과 공간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공연예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작공간은 단순히 공연을 올리는 물리적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예술가와 관객, 지역사회와 창작 주체가 만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민간 공연장이 지속가능한 운영 구조를 갖추고, 참여예술가 및 단체와의 건강한 협력관계를 통해 창작의 장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하였습니다.

2026년 공연예술창작주체(창작공간) 추가공모는 추경 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 기간과 지원 규모, 수행 조건에서 정시공모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시공모가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을 대상으로 운영된 데 비해, 이번 추가공모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기획 공연 수행 조건도 최소 3회 이상에서 최소 2회 이상으로 조정되었고, 지원 규모 역시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9천만 원 이하로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추경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르별 인터뷰 심의가 아닌 장르 통합 서류심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공모에는 총 33건이 신청하였으며, 지원 확정 건수는 연극·뮤지컬 6건, 무용 2건, 음악 2건, 전통예술 2건입니다.

### ■ 선정 단체와 심의 기준

심의 기준은 크게 ①신청주체의 사업수행역량(40%), ②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40%), ③사업계획의 공공성(20%)이었고, 이를 토대로 다음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합의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가) 신청 공연장이 단순한 대관 공간을 넘어, 창작공간으로서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공간의 물리적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이 어떤 예술가와 만나고, 어떤 관객을 형성하며, 어떤 창작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였습니다.

(나) 공연장 운영 이력과 성과가 신청사업의 수행 역량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기존 운영 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성적 반복에 머물지 않고, 이번 사업의 목표와 공동기획 구조로 구체화되었는지를 살폈습니다.

(다) 공동기획의 실질성을 중요하게 평가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핵심은 공연장과 참여 예술가 또는 단체 간의 건강한 협력관계 구축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참여에

술가 명단을 나열하거나 공연 횟수를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획 과정에서 공연장과 예술가가 어떻게 협력하고,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나누며, 결과물을 어떻게 확산할 것인지 살펴 보았습니다. 더불어 참여예술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라) 공연장 정보 접근성과 관객 점점 확대 계획을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자체 홈페이지 또는 SNS 운영, 공연일정과 대관 정보의 현행화, 대관료 및 절차 안내는 민간 공연장이 공공적 성격을 지닌 창작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또한 관객 개발, 지역사회 연계, 공간 특성화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경우 사업의 공공성과 확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선정된 지원자들은 대체로 위와 같은 기준과 조건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 ■ 사업의 올바른 취지 구현을 위해 바라는 점

이번 사업은 '추가공모'를 내건 추경 사업입니다. 심의위원들은 제한된 예산안에서 사업의 취지와 추경 사업의 목적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개별 지원 규모를 일부 조정하더라도 보다 많은 공간을 지원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액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신속 집행이 요구되는 추가공모의 조건 속에서 더 많은 민간 창작공간이 최소한의 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선정 공연장은 감액된 지원 규모와 7개월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운영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보다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정된 단체들은 공연장과 참여예술가(단체) 간의 건강한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앞의 기준 (다)에서 거론한 것처럼) 선정 공연장은 공동기획 참여 예술가(단체)와의 협력 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절실해 보입니다. 공연장과 예술가의 관계가 일회성 섭외나 단순 출연 구조에 머무르지 않고, 기획·제작·홍보·성과 공유 전 과정에서 상호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본 사업의 목적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참여예술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 수행 과정 전반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연예술창작주체(창작공간) 지원사업은 민간 공연장의 생존을 넘어, 공연예술 생태계의 다음 기반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공연장은 예술가에게는 실험과 발표의 장이 되고, 관객에게는 새로운 예술 경험의 입구가 되며, 지역사회에는 문화적 활력을 만들어내는 공공적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가공모를 통해 선정된 창작공간들이 짧은 사업 기간과 조정된 지원 규모 안에서도 사업의 핵심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고, 공연장과 예술가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심의위원 일동